

김인식호 1번타자…경험이나, 파워나, 스피드나



이용규



민병현



서건창

‘용규 놀이’ 창시자 이용규
큰 경기 경험 많은 검증된 1번타자

장타력 겸비한 민병현
기선제압 카드 제격…만점수비까지

‘차세대 리드오프’ 서건창
스피드·출루율 최강…담력은 글썽



이경노 기자의 오키나와 리포트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여러모로 의미미한 대회다. 그중에서도 야구가 정식종목으로 부활하는 2020도쿄올림픽까지 책임질 새로운 ‘Team Korea’의 모습을 가능해볼 기회다.

대표팀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참 많이 바뀌었다. 1라운드 탈락의 아픔을 맛본 4년 전 3회 대회 때 멤버는 고작 8명뿐이다. 특히 타자는 김태균(이용규(이상 한화) 이대호 손아섭(이상 롯데)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김인식 감독의 ‘선택’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번 대회에서 구성할 타선 이항후 대표팀 구상의 밑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요미우리와의 연습경기를 앞두고 “이제 타선 변화는 이대호에게 달렸다. 또 한 가지 남은 건 1번타자”라고 밝혔다.

타선 고민의 2가지 축은 ‘이대호’와 ‘1번타자’다. 4년 150억원에 친정 롯데에 복귀한 이대호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린 소속팀 캠프에 있다 17일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했다. 그러나 이들과의 훈련을 통해 컨디션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줬다. 이대호가 어느 타선에 포진되느냐에 따라 김태균, 최형우(KIA)와 함께 3~5번 클린업트리오가 결정되고, 자연스레 나머지 타선도 확정된다.

문제는 리드오프다. 김 감독은 19일 요미우리전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고민 없이 이용규를 1번 타수에 적었다. 그러나 22일 열린 요코하마전은 다르다. 김 감독은 “1번타자를 바꿔보려 한다. 민병현과 서건창, 둘 중 한명을 써볼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병현(두산)과 서건창(넥센)은 캠프를 통해 우익수와 2루수 주전경쟁에서 승리하는 모양새다. 이제 선배 이용규가 베틀하는 ‘1번타자 대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호 1번, 부동의 ‘국대 테이블세터’ 이용규

이용규는 2008베이징올림픽 이후 정근우(한화)와 함께 국가대표 테이블세터 자리를 지켜왔다. 이번 대회는 수물 여파로 정근우가 낙마했지만, 이용규는 새얼굴들과 함께 대표팀 타선을

지키고 있다. 큰 경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경험’만큼은 으뜸이다. 특히 집요하게 공을 파올로 커트해내면서 상대의 투구수를 늘리는 ‘용규놀이’로 유명하다. 1번타자로서 능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돼있다. 지난해 타격 2위(타율 0.352)로 정확성도 으뜸이다.

●기호 2번, 장타력 겸비한 ‘우승팀 DNA’ 민병현

민병현은 우익수 포지션에서 ‘첫 번째 옵션’이다. 좌익수 최형우-중견수 이용규-우익수 민병현의 구도가 확정적이다. 중견수와 우익수가 가능한데다 장타력을 겸비한 민병현은 수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소속팀 두산에서는 3번타자로 나섰지만, 리드오프 경험도 풍부하다. 최근 도루 개수가 준 대신 잠실구장에서 두 자릿수 홈런이 가능한 중장거리 타자로 변신했으나, 기선제압에 나서는 ‘강한 테이블세터’로 주목받고 있다.

●기호 3번, 스피드는 제일 ‘새얼굴’ 서건창

서건창은 완벽한 ‘뉴페이스’다. 대체선수로 뒤늦게 발탁된 오재원(두산)보다 컨디션이 좋아 주전 2루수에 한 걸음 다가섰다. 생애 처음 대표팀에 뽑힌 그는 1번타자 후보 중 지난해 가장 많은 도루(26개)를 기록할 정도로 스피드가 뛰어나다. 이용규의 스피드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서건창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표팀 경험이 부족한 게 걱정이다. 코칭스태프는 이를 배려해 서건창을 요미우리전에 7번 타수에 배치했다. 큰 경기에서도 통할만한 담력을 보여준다면, 서건창 역시 훌륭한 ‘차세대 리드오프’다. 실제로 요미우리와의 연습경기에선 서건창이 가장 두각을 드러냈다. 1번타자 이용규가 3타수 무안타 2삼진, 2번타자 민병현이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반면 7번 타수에 포진된 서건창은 4타수 1안타 1삼진으로 대표팀의 4안타 중 1개를 책임졌다. 2회 빗맞은 타구에 전력질주해 내야안타로 팀의 첫 출루를 이끌었고, 양의지의 좌전안타 팬 3루까지 내달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오키나와(일본) | nirvana@donga.com

방출→국대…최형우·서건창·원종현이 주는 교훈

최형우 100억·서건창 200만타 인생역전
암까지 이긴 원종현 ‘인간승리 아이콘’



최형우

서건창

원종현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대표팀 최종 엔트리(28명)를 보면 처음으로 WBC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많다. 이들 중에서도 방출의 설움을 딛고 당당히 국가대표까지 발탁된 곡절 많은 3총사에게 눈길이 쏠린다. 최형우(34·KIA), 서건창(28·넥센), 원종현(30·NC)이 그 주인공들이다.

●포수로 낙제 받은 최형우 FA 100억원 신화

최형우는 전주고 졸업 후 2002년 신인드래프트에서 삼성에 2차 6라운드(전체 48순위)에 지명돼 프로 유니폼을 입은 포수였지만, 2002년 4경기, 2004년 2경기 등 1군에서는 총 6경기 출장에 그쳤다. 포수로 낙제점을 받은 그는 결국 2005년 말 방출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고 말았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자 막노동일을 하기도 했다. 그 즈음 창단된 경찰야구단에 운 좋게 합격한 그는 외야수로 변신했고, 방망이 잠재력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결국 다시 손을 내민 삼성에 재입단한 그는 2008년 당시 역대 최고령 신인왕을 수상하며 지난날의 설움을 날렸다. 최근 3년 연속 3할·30홈런·100타점을 올리는 꾸준함을 무기로 지난 스토브리그에서는 KBO리그 FA(프리에이전트) 사상 최초로 4년 총액 1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팬밭에서 벤츠’ 성공신화를 썼다.

●2차례 육성선수 입단 서건창 200만타 위업

서건창은 광주일고 졸업반 때 아예 프로 지명조차 받지 못했다. 키도 작고 힘도 없었던 그를 눈여겨보는 구단은 없었다. 2008년 연습생 신분인 육성선수로 LG에 입단했지만, 그해 1군 무대에 단 1경기에만 출장한 뒤 방출 통보를 받았다. 설상가상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제대 후 2011년 말 넥센에서 테스트를 받아 가까스로 유니폼을 다시 입은 그는 2012년 신인왕을 차지하며 세상의 편견을 깨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KBO리그 사상 최초로 200만타를 때리는 대위업을 달성하면서 KBO리그를 대표하는 안타 제조기가 됐다.

●방출과 암투병 극복 ‘인간승리’ 원종현

원종현은 군산상고 졸업 후 2006년 신인드래프트 2차 2라운드(전체 11순위)로 LG에 입단했지만 한 번도 1군 마운드에 서지 못한 채 2010년 방출되고 말았다. 2011년 10월 트라이아웃을 통해 신생팀 NC에 입단했지만 다시 방출될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 2014년 프로 데뷔 후 처음 1군 마운드에 오른 그는 한풀이를 하듯 73경기에 나서며 이름 석자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엔 155km의 강속구를 던지면서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2015년 스프링캠프 때 청천벽력 같은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지난해 기어코 마운드에 복귀해 인간승리의 드라마를 썼다. 암투병을 겪은 선수라곤은 믿기지 않게 150km대 강속구를 회복해 이번엔 국가대표까지 발탁되는 기적을 만들었다.

●방출 설움 3총사, WBC 핵심전력으로!

이들 3명은 이번엔 처음으로 ‘꿈의 무대’인 WBC에 나선다. 단순히 참가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3명 모두 이번 대표팀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할 전력의 핵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2루수 서건창은 대표팀의 테이블세터로 공격의 활로를 뚫어야 하고, 빠른 발로 상대 내야를 휘저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최형우는 김태균, 이대호와 함께 중심타선을 책임져야 한다. 원종현은 볼펜의 히든카드로 강속구 사이드암에 생소함을 느끼는 다른 나라의 타자들에게 효과적인 무기가 될 전망이다.

방출선수에서 KBO리그 슈퍼스타로, 그리고 국가대표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무명에서 이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을까. 결과 이전에 이들이 걸어온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67th Internationale
Filmfestspiele
Berlin

Out of Competition
제 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

3월 1일 IMAX 대개봉

2월 28일 전격 전야 개봉!!

청소년관람불가 MARVEL